

◀ 우측부터  
이영춘지부장,  
강무상총무,  
김순복씨의  
모습

우수지부 탐방

## 고 성 지 부

# 시식회 개최와 2단계 사육방식으로 회원들간의 결집을 유도

- 추 용 진 -

조선말 고종 32년에 불리우기 시작한 고성군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푸른 물결을 받는 경남도 남쪽 해안에 자리잡고 있다. 이 따뜻한 남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소재한 고성지부(지부장: 이영춘)는 지난 2월 16일 95년 전국 우수지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93년에도 우수지부로 선정된 바가 있다.

고성지부는 겨울에도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따뜻한 기온과 신선한 바닷공기, 맑은 물이 한데 어우러져 돼지 사육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이 쌍죽해수욕장을 비롯, 한려해상공원과 접하고 있는 청정해역지역이기 때문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져 분뇨처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고성지부 회원농

가의 분뇨처리는 무방출을 기본으로 하고 효율적인 분뇨의 처리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협회란 회원들이 협력하여 이루는 단체

16명 지역 양돈인들의 모임인 양돈인회로 시작한 고성지부는 83년 5월에 창립을 하여 현재 55명의 지부회원 전체가 중앙회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고성지부 회원 농가의 총 돼지두수는 6~7만두로 평균 1,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고성지부는 이영춘 지부장을 비롯하여 부지부장 2명, 감사 2명, 운영위원 8명으로 총 13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영춘 지부장은 고성군내 축산 관련 업체 및 단체장들의 모임

인 축산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하여 고성군 축산발전을 위해 토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지난 4월 19일에는 고성지부 주최로 축산인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란 '회원들이 협력하여 이루는 단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잘 실천하고 있는 고성지부는 지부회원의 80% 이상이 사료를 양돈조합을 통해 공동구매하여 생산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다. 한편 강삼재 총무는 지부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하면 양돈인들의 힘이 결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지난 창립 기념일에는 사료의 공동구매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져 양돈조합으로부터 펜티엄급 컴퓨터를 부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월례회의는 매월 17일에 개최되는데 한달은 세미나, 한달은 등반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양돈관련 지식교류 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세미나는 각 회원들 농장의 사양관리기술과 문제점들의 토론을 위주로 하며, 축산동향, 사양관리, 질병, 사료, 영양 등 양돈 경영 전반에 대하여 양돈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성에서는 '부인회'라는 특이한 친목단체가 있는데 '부인회'는 고성지부회원의 부인들이 장날인 16일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원들간의 결집이 되고 있다.

### 작년 돈가하락의 대책으로 시식회 개최

고성지부는 95년 11월 21일 계속되는 돼지고기의 하락으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때 지부사무실 앞에서 돼

지고기 소비홍보 및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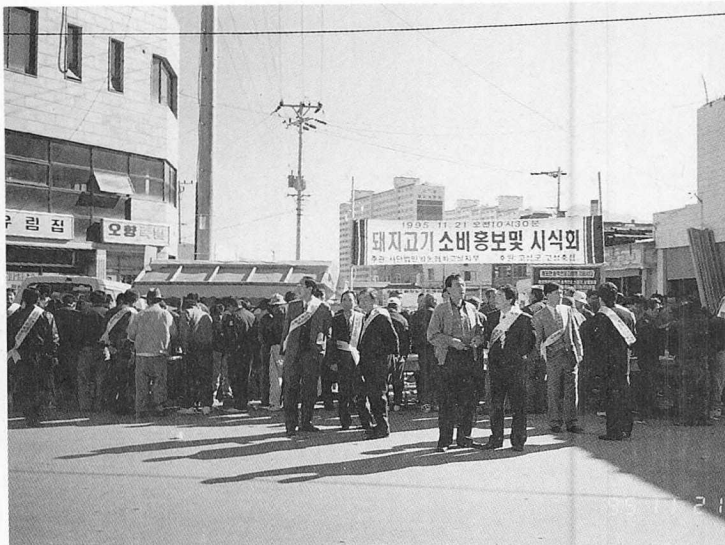
시식회에서는 돼지고기 소비홍보전단 400매, 요리책자 250권을 중앙회에서 지원받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통돼지바베큐를 시식케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유발시켰다. 이때 발맞춰 축협이 돼지고기 가격인하와 주부들의 관심으로 돼지가격이 안정세를 타게됐다고 한다.

이영춘 지부장은 시식회를 개최하고 돼지고기와 요리에 대해 홍보를 한 결과 주부들이 돼지고기 부위 등을 구별하지 못하고 돼지고기는 단지 굽거나 찌게용으로 먹는다는 등 다양한 돼지고기요리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돼지고기 요리를 「월간양돈」 뿐만 아니라, 일간지나 여성지에 게재하여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 질병예방과 사육개선을 위한 자돈 전문 생산농장 준공

고성지부는 지부활성화와 양돈사육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자돈을 공동생산할 수 있는 농장을 지난 6월에 착공했다.

이 자돈 생산농장은 2천평에 대지에 모돈 1,000~1,200두의 규모로 공동으로 자돈을 생산하여 각 회원농가들에게 공급



▲ 작년 11월 돈가하락시에 실시된 시식회의 모습

하는 2단계 사육(2-Site) 방식으로 경영할 예정이다. 농장은 번식사 2동, 자돈사 1동, 분만사 1동 인공수정을 위한 돈사 1동으로 구성되고 조기이유로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회원농가들에게 정액을 실비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성지부는 남부시협소에서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육류내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영춘지부장은 외국 돼지고

기 수입이 완전개방되면 냉장육이 들어와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는 고가의 질을 고려하여 생산해야하고 정부는 냉장육을 유통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영춘지부장은 양돈시설자금은 많이 지원되었지만 상환기간이 짧아 시설투자후 입식이 되고나면 출하도 되기 전에 상환기간이 돌아와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식에서 분만까지의 기간동안 돼지 1마리당 150~200만원의 운영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2~3년 안에 갚으려면 더욱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며 시설자금 지원의 상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한경쟁시대에 양돈인들이 살아나갈 방법을 위한 아이디어 색출에 고심하는 이영춘 지부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3년간의 지부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며, 양돈단체가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귀·내의  
아·품·에  
의·전·구·비

정직과 신용으로 달려온 외길 40년  
21세기를 고객과 함께 열어갑니다.

유통의 KNOW HOW를 가진 (주)협성가축약품이 귀사의 적정재고를 유지시켜 주며 필요한 약품과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여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  
**(주)협성가축약품**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7-31
- 본사 : 967-8779/964-4870
- 청량리영업소 : 965-9778
- FAX : 960-1894